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 채택

무주군의회, 제322회 임시회 폐회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5일 제 32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 등 안건 심사를 완료했다.

무주군의회는 지난달 27일부터 10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조례안 및 공유재산 계획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그리고 최윤선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건의문을 통해 "반도체 생산 거점의 안정적 확보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차원의 전력·송전 인프라 구축은 중대한 국가 과제"라고 말했다.

반도체 생산시설의 입지 선정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과 송전망 확충이 필수라는 최윤선 위원장은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발전과 소비

를 동일지역에서 해결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 공급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와 전력 생산·소비시설을 연계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가 새만금이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에 이전할 경우 장기 송전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향후 국가 전력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될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국가 핵심 산업구조를 완화하고 전북 지역 산업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또한 무주군을 비롯한 전북 지역이 국가 전략산업 배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고 발전 설비와 송전 인프라 부담을 감내하면 서도 산업 유치와 고용창출 혜택에서 배제되어 온 만큼 "특정 지역의 희생



무주군의회는 최윤선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을 전제로 한 송전망 구축을 멈추고 산업 입지정책과 전력정책을 연계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한 무주군의회는 △국가 핵심산업 구조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할 것 △지산지소형 전력공급 체계를 기본 원칙으로 국가 송전망 구축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신규

송전선로 건설을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오광석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과 지적사항을 후속조치에 반영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고 "이번 회기를 통해 다진 논의와 결정을 바탕으로 군민의 삶에 작은 변화와 희망의 기운이 스며들 수 있도록 분명하게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무주군, 농업용 드론 전문가 양성

무주군이 농촌 인력난 해소와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용 드론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 교육은 3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이론과 실기 교육을 병행한다.

교육은 모의비행 요령 등 이론 교육과 기본·숙달 비행 실기 교육으로 구성된다. 이론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화관 정보화 교육장에서, 실기 교육은 반달밭 드론교육원에서 진행된다. 교육 대상자는 2월 9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하며, 관내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운전면허 2종 이상을 소지한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총 6명을 선발하며, 모집 인원이 초과될 경우 선정 기준에 따라 개별 통보한다.

교육비는 1인당 150만 원으로, 자부담 50만 원을 포함해 사업비 총 2천만 원이 투입된다.

한편, 무주군은 농업용 드론 교육 외에도 저속 농업기계 표시등 부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8대에 등과 장치를 바탕으로 군민의 삶에 작은 변화와 희망의 기운이 스며들 수 있도록 분명하게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무주=손흥기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과수화상병

예방 활동 총력

무주군이 사과·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활동에 나섰다.

무주군은 1월 12일부터 오는 4월 24일까지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중점 기간'을 운영하며, 주 1회 이상 6개 읍면의 과원을 순회 점검하고 있다.

점검반은 지도·연구직 공무원과 농업인 상담소장 등 6개 팀 28명으로 구성됐다.

순회 점검에서는 병해 의심 증상 발생 여부와 궤양·위험주의 제거 상황 등을 집중 확인한다.

아울러 농업인을 대상으로 궤양 제거 방법, 작업자 및 농기재 소독 요령, 외부 유입 차단을 위한 과원 관리 수칙 등 예방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 찾아가는 지역 자율방재단 재난안전 교육훈련

진안군은 5일, 국가재난안전교육원과 협력해 진안군 자율방재단 단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역 자율방재단 재난안전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돼 태풍, 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단계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다.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혹한·폭설 등 겨울철 재난에 대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는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전문 강사가 나서 △지역 재난관리 체계 및 자율방재단의 역할, △혹한·폭설·결빙 시 대응 요령, △한랭질환 대처 방법, △심폐소생술(CPR) 및 응급처치 실습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사례 중심 교육과 응급처치 실습을 병행하여, 자율방재단원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돼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주민이 정책 결정권 쥐는 주민자치회 전환 절실”

문은영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5분 발언

문은영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현재 읍·면별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5일 열린 제32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에서 주민으로, 무주 자치의 패러다임 전환" 5분 발언을 통해 "무주군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적 과제"라고 말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그동안 무주군은 관 주도의 정책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왔다. 이제는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예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실질적 자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강화는 주민이 민주적 의사결정 주체가 되어 마을과 지역에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미 주민자치회 법제화가 되어있는 만큼 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

니라 필수 과제"라고 강조한 문은영 위원장은 무주군에 △주민자치회 전환 로드맵 수립과 추가경정예산에 전환 예산편성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도록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소통 창구 확대 △올해 안에 최소 2개 이상 읍·면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이제 주민에게 결정권을 돌려주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주권자가 될 때 무주군의 미래는 더욱 밝아지고 자치분권의 선도 도시로도 거듭날 것"이라고 말하고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 방문의 해’ 진안고원 스냅촬영 지원

진안군은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를 맞아 진안의 아름다운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2026 진안고원 스냅촬영 지원사업'을 시범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진안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군민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할에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 스냅촬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면 주소지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진안군 관광지 일원에서 인물 스냅 촬영을 진행할 경우 건당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60건이다.

품질 확보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사진, 영상, 미디어, 콘텐츠 등 관련 업



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 사진작가를 대상자가 직접 섭외해 촬영을 진행 후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촬영 후 전체 공개로 설정된 본인의 소셜미디어(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에 필수 해시태그(#진안여행, #진안스냅, #촬영장소명)와 함께 결과물을 3장 이상 게시해야 한다.

단, 촬영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전 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사과 재배 신기술 보급 추진

장수군은 최근 빈발하는 이상기상과 고령화 시대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과 재배 신기술 보급과 현장 맞춤형 기술지도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장수군은 5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제 영농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지역 기후와 환경에 적합한 재배기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사과시험장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농기계, 고온·재해 대응 시설과 노동력 절감형 재배기술을 실증하고 이를 농가에 현장 보급하기 위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약 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상고온 대응 미세살수·차광 시설 △노동력 절감을 위한 수형

개선 및 다축 재배기술 △스마트 방제 기술 △과원 관리 기계화·자동화 기술 보급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 보급에 그치지 않고 사과시험장을 활용한 현장 중심 컨설팅과 교육을 병행해 농업인이 실제 재배 현장에서 신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품질 사과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농가의 작업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노인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사)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지회장 허기태)는 지난 5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2026년 노인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경우 장수부군수를 비롯한 허기태 대한노인회 장수군 지회장 및 경로당 회장과 총무, 지회 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회

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실무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경로당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로당의 투명한 회계관리 운영으로 회원들 간의 신뢰와 조직력, 경로당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캐мп인